차상구 국회의원 출마 공식선언

이명박 당선자와 중앙당 인맥 공천자신

차상구 한나라당 국제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지난 27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4월9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공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차 부위원장은 "경제가 대통령 선거에서 화두로 작용했고 결국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면서 "경제와 가까운 사람이면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코드가 맞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번 공천기준은 경제회복과 경제코드가 될 것"이라면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는 미주한인 후원회장, 한미협력단장 등을 역임하면서 개인적 친분이 있고 중앙당 인맥이 있기 때문에 공천에 자신 있다"고 강조했다.

포천지역에서의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 차 부위원장은"어릴적에 고향을 떠나 인지도가 낮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오피니언 리더과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왔다"면서 "장터를 중심으로 활동하면 인지도는 높아질 것이다. 또 중앙당 차원에서도 정치신인들에게 인지도를 감안해 20%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공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는 "공천을 100% 확신한다. 만약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차 부위원장은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유독 포천과 연천은 아직도 규제에 묶여 허덕이고 사람들이 떠나간다"면서 "포천과 연천은 한국의 화약고를 코앞에 두고 50년을 살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제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상구 부위원장은 포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 21일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용아섬유(주) 박노현대표이사(우)가 포천신문 최호열대표이사(좌)에게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박노현 용아섬유(주)대표이사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100만원 기탁

용아섬유(주) 박노현 대표이사가 12월27일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창구에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100만원을 기탁했다.

박노현 대표이사는 매월 정기적으로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10만원씩 자동이체를 하고 있으며 연말연시를 맞이해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성금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또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이보용 위원장 등 위원 일동이 100만원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기탁했으며 백관영 전 정심장학회 회장이 20만원, 송참봉밥집에서 21만원, 김영숙 타올갤러리에서 10만원을 특별기탁했다.

아울러 매월 자동이체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는 분들은 김종현 조사위원회 고문 20만원,

강수동 동천장학회 이사장 20만원, 권혁주 포천제일교회 목사 10만원, 유재철, 한명숙씨 각 10만원, 박병식 이동맛갈비 대표 5만원, 박근식씨 5만원, 강옥자 늘봄꽃화원 대표 2만원, 송우리지역 노래연습장 모임 김한성 회장 등 회원일동이 10만원을 매월 기탁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기탁한 금액은 연말연시와 구정등에 집중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전달할 계획이며 각 위원회에 의뢰하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추천받고 있다.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위한 성금이나 어려운 이웃 추천은 031-542-1507로 하면 된다.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는 2004년 11월에 개설되어 연중 운영되고 있으며 주변의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현금과 쌀, 생활필수품 등을 전달해 오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추천! 이야기 한마당

고난과 승리

이보용
본지 자문위원장

세계적인 명지휘자 토스카니니는 원래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18세 때 교향악단의 단원이 되었는데 그는 시력이 나빠서 연주 때마다 앞에 펼처놓인 악보를 볼수 없어서 여간 어려운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악보를 외워버렸습니다. 그 이후 이것이 습관화 되어졌고 오케스트라 특성상 조화를 이뤄야겠기에 다른 파트 악보까지 모조리 외워버렸습니다. 한번은 연주를 막 앞두고 지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득이 대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연주를 지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의논 끝에 '악보를 모조리 외우고 있는 토스카니니에게 지휘를 맡기는 것이 좋겠다.' 하여 맡기게 되었습니다. 지휘를 시작했습니다. 어렵지 않게 모든 곡을 잘 소화하여 연주를 마쳤습니다. 이 것이 바로 토스카니니가 세계적인 명지휘자로 발돋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훗날 그는 말했습니다.

"나의 나쁜 시력이 나를 명지휘자로 만들어 주었다." 역경과 위기가 기회가 된 것입니다. 문제를 또 다른 기회로 삼으시길 기도합니다. 파도를 만나 파도에 얻어맞는 자도 있지만 큰 파도를 찾아가서 파도타기를 즐기는 자도 있습니다. -좋은 글 중에서-

토스카니니는 시력이 나쁜 것을 슬프게 생각하여 좌절하지 않고 의연히 극복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국의 역사학자의 국가의 역사도 도전(Challenge)과 응전(Response)의 역사로 해석한 것과 같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어 운명의 여신은 그의 편이 되어 주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마음 먹기와 태도에 따라 역경을 만나 좌절 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극복 할 것인지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다음의 격언을 깊이 생각하며 인생의 길을 가면 후회할 알이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좋은글 中에서
(문의 011-342-5834)

1천여만원 모아 희망과 용기 전달

신봉초 학부모회 장군이네 돕기 일일찻집

신봉초등학교 학부모회(회장 정연우)는 12월15일 소흘읍 송우리 소재 토마토레스토랑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신봉초등학교 학생 10명이 살고 있는 장군이네(창길잡이의 집) 돕기 일일찻집을 개최해 많은 사람들이 정성을 모아 주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성을 모아 신봉초등학교 조규식 교장에게 전달하고 조교장은 다시 장군이네에 전달하여 이곳에 살고 있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일일찻집을 개최한 정연우(원안사진) 학부모회장은 "어머니들이 뭔가 뜻있는 일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며 "주변에 뜻을 같이해준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봉초등학교 학부모회는 2005년 개교한 신봉초등학교 학교장단 및 운영위원회와의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지원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을 돕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희망스타트 사업을 포천시에서 위탁받아 학교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정연우 회장은 "신봉초등학교 학부모회는 이러한 행사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아동들의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들과 주변저소득층 아동들을 돕기 위한 행사도 다양하게 해보자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목회단상

시작하는 마음

김창성
내촌감리교회 목사

무자(戊子)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시간은 다 귀하고 값진 시간이다. 그러나 1년 365일 가운데 그래도 가장 뜻 있고 새로운 의미가 있는 날은 한해를 시작하는 날일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귀중한 선물을 받았다. 어른도 아이도 남자도 여자도 빈부귀천 모두가 똑같은 365일의 시간을 받았다. 이 시간의 선물(膳物)을 어떻게 쓰느냐는 우리들의 과제다.

근면과 성실로 감사하며 쓴다면 반드시 시간이 아닌 축복(祝福)의 열매로 갚아 주실 것이다.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가치 있게 관리하고 사용해보자. 시간은 남이 관리해 주지 않는다. 내가 바로 쓰지 않으면 무서운 후회와 대가를 치루게 된다.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자유가 아니다. 책임이다.

미국의 유명한 배우였던 오드리 햇번은 이런 교훈를 했다고 한다. 아름다운 이 술을 원하느냐? 그러면"남을 칭찬하는 입술이 되라. 네가 아름다운 눈을 갖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남의 좋은 것만 보아라"라고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입술도 아름다운 눈도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에 수고하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두 손을 주신 것은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쓰고 다른 하나는 남을 위해서 베푸는 손이 되라는 의미로도 생각해 본다. 한 손으로 내 것은 무섭게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는 남의 것마져 강탈하는 손이 되어서는 안된다.

2008년(戊子年)은 우리나라로서는 건국의 회갑(回甲)을 맞는 해라 한다. 잃었던 조국과 산하를 찾고 우리의 주권를 회복한 해이기도 하다. 또 새는 새 정부가 들어선다. 분열이 아닌 화합을 이루고 욕심이 아닌 잔치집의 즐거움의 식탁(食卓)이 되려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자. 나누려는 마음속에 한결 여유로운 삶이 있을 것이다.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결과는 칭찬과 풍성함이 있을 것이다.

성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 하신다. 마태복음 25장21절에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작은 실천이 큰 결과를 만든다.

'미래의 꿈을 모아 여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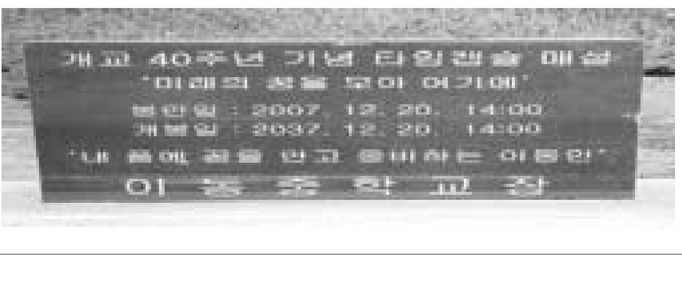
이동중학교 타임캡슐 봉안식

12월 20일 오후 2시, 포천시 이동면에 위치한 이동중학교에서 개교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미래의 꿈을 모아 여기에'라는 주제로 타임캡슐을 봉안했다.

이동중학교 재학생과 동창회, 교직원들이 주축을 이루어 진행된 이 행사에는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을 비롯한 여러 내빈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향후 30년 후인 2037년 12월 20일에 본교 교정에서 타임캡슐을 개봉하게 된다.

이번 타임캡슐 봉안에 대해 이동중학교 김춘성 교장선생님은"학생들의 애교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학창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을 기리며 학생들이 평소 가지고 있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거행되었다."고 밝혔다.

타임캡슐에는 30년의 시간과 추억을 간직한 채, 재학생들의 소장품과 학교 기념품, 이동중학교 소식지, 교육 활동, 2007년 12월 20일자 신문 등을 함께 봉안했다.



이동중학교 학생자치회장 김현규 학생은"30년 후 중년의 나이에 다시 모여 학창시절을 추억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사뭇 기분이 묘하면서도 들뜬다. 다시 모이게 될 그 때 멋지고 훌륭한 중년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 공부하며 미래를 위해 정진해야겠다는 포부가 생겼다."고 밝혔다.

이번 타임캡슐 봉안식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미래의 꿈을 간직하는 이동중학교의 향연의 자리가 되기도 했다.

2037년 12월 20일, 10대의 풋풋하고 열정으로 가득한 청춘의 학생들이 중년의 나이로 성장하여 그들의 학창시절을 반추하게 될 날, 다시 그 현장에 찾아가 취재하게 될 것을 기대해 본다.

이부원 포천신문 학생명예기자단 총무(이동중 1년)manuk@hanmail.net

자유기고

어른들께 드리는 크리스마스 선물

윤남복

박홍만

심재성

12월24일 이동면 노곡5리 마을회관에서 참으로 이색적인 행사가 마련되었다. 이동면 노곡리에 거주한 노인들을 위한 영정사진 찍어주기 행사를 실시하여, 이 지역 노인영정사진을 촬영하여 액자에 담아드리고, 조촐한 음식을 대접하며 모처럼 동네 노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즐겁고, 뜻있는 한 때를 보냈다.

이 취지의 발상은 이동면 이동초등학교 29회 졸업생들의 모임인 가람회 만남의 장소에서 이 지역을 위해 무슨 뜻있는 일이 없을까 의논하던 중 이 지역을 위해 봉사하자는 취지로 영정사진을 찍어주자는 의견을 취합하게 되었다.

29회 동창 회장 윤남복(혜성미용실대표)와 박홍만 방범대장(경남 카센터대표)와 심대성 등

의 이 행사를 위해 적극 주선하여 지난 3월20일 이동면 도평리 연곡리 지역 노인 147분의 영정사진을 액자에 담아 드렸고, 오늘 24일 노곡5리 마을회관에서 151분의 영정사진을 찍어드리게 되었다. 행사를 돕기 위해, 이동면 부녀회장 국승복님과 회원 여러분의 안내와 음식을 맡아 봉사를 열심히 하였고, 노인들의 편의를 위해 방범대장 박홍만님과 대원 여러분이 차량지원과 연로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직접 모셔와서 사진촬영과 식사대접을 해 드리고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봉사를 하였으며 특히, 사진과 액자를 포함 8만원 상당의 노인300명의 영정사진을 제공한 심재성 님의 숭고한 봉사정신이 노인여러분과 지역주민여러분의 지대한 환심을 사고 있다.

요즘 시대 참으로 실행하기 힘든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할 수 있었기에 이 분들의 봉사

의 빛이 높이 평가받고 있다. 29회 동창회장을 맡고있는 윤남복(혜성 미용실)님은 생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용실을 비우고, 노인들의 머리를 직접 한 분 한 분 손질하여 주어 이 행사를 더욱 빛나게 하여 주었다. 모처럼 활짝 웃고 즐거워하는 노인들과 평생 마지막 초상화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를 영정사진을 촬영하는 장소였지만 즐거워하고 고마워하는 어른들의 모

습을 보면서 봉사자들은 보람과 즐거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동초등학교 29회 동창회 여러분과 국승복 이동면 부녀회장을 비롯한 회원여러분, 방범대

여러분과 이 위에도 이장님과 반장님들의 훈훈하고 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봉사가 성탄절을

앞 둔, 이 지역의 아름다운 빛으로 남기를 기원하여 본다.

김형석
조사위원회 총무

인 연

자원봉사 대축제 행사장인 반월아트홀에서 영북면 적십자 회장을 통해 민원기 대령님을 처음 뵙게 되었다. 공군 사관학교 26기(전)6군단 참모장을 지내시고 사모님과 함께 호스피스 봉사를 하고 계시는 민대령님의 숭고한 마음에 포천동 바르게살기가 작은 봉사에 동참하기로 했다.

사실상 봉사라는 게 만만치 않게 힘든 것이라고 느낄 때도 있지만 감사함과 보람을 느낄 때가 더 많다.

작은 바자회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으로 베풀어서 풍요롭고 모든 갈등에 융합하고 화목을 추구하는 겸손, 미덕을 기르며 자신을 조금은 낮출 수 있는 숭고한 자세로 인생의 행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모든 인연의 원만하게 화합하고 영원한 세상의 시간을 만들어 보고 싶다.

민대령님께서 봉사하시는 것을 보고 깨달음은 사실상 사모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하지 않고 허락만 해주심도 감사할텐데, 과거에 창공을 날던 비행기 조종사에서 지금은 죽엄이라는 것을 기다림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헌신노력하신다. 봉사라는 두려움 자체를 망각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다소나마 나누고저 일주일에 3차례 정도 노력 봉사에 행하심을 볼 때 중년의 나, 나의 반생애가 무색하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사실 인생에 있어 자기 자신을 알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숙제는 없을 법하다. 작년에 이어 호스피스 우리집 쉼터 나눔의 집에 목욕침대 3개를 기증하고 돌아오는 길, 마음에 평정을 느끼며 나 자신을 알아가고 변화시키는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문자답해 본다. 누구보다 사랑하는 것은 우리 포천동 바르게 살기 위원님들이다. 잃어버린 본심을 찾아서 2007년은 기꺼이 보내려 한다.

박혜자
주부 명예기지단장

아름다운 노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사물에 애정을 갖는 거이다. 가장 존귀한 것은 남을 위해 봉사라고 결코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

2007년을 보내며 독거노인 5가정에 도배, 장판을 해주는 훈훈한 정이 있어 칭찬하고저 한다. 기술과 인력, 작은 수입금, 허스름한 집에 나무를 대고 스티로폼을 넣고 석고 보드를 대고 도배, 장판을 하는데 한 집당 꼭 하루 5인의 인력이 투입된다. 이민형, 권선진, 양준모, 이재학, 김미숙 용사들의 합창 이건 신바람이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노력봉사고 또 인건비가 만만치 않은데 포천동 바살협에서 올해는 무언가를 보여주었다. 부족한 예산, 봉사해서 얻어진 수익금으로 헛되이 하지 않고 독거노인에게 세탁기, 냉장고, 도배, 장판을 해드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즐겁고 멋진 일이다. 대망의 2008년도, 우리 좋은 꿈꾸고 화합하고 질서 있게 진실해 봐요.

박형민
주부 명예기지단포천동부지부장